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24호 석굴암석굴



석굴암

고은

얼마나 많은 밤들이 있었더나
 그 얼마나 많은
 바람 부는 날들이 있어야 하였더나

천년을 울어
 또 천년을 울어

여기 찬 돌덩어리 속 울음으로
 이토록 승고한 아침 해돋이더나

고개 숙여 흐느끼어라

그 언젠가 그때 여기 앉아
 환히 환히 달 떠오르리라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고은 시인은... 전북 군산 출생. 1958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만인보〉 〈히말라야 시편〉 등.

“원융 화합해 종단 운영하길”

前 종정 법전 대종사, 중앙종무기관 소임자들에게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소임자들이 4월 3일 해인사 퇴설당을 방문해 지난 10년간 제11·12대 종정을 지낸 법전 대종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정예하께서 10년간 계시는 동안 종단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늘 화합을 강조하신 덕에 종단이 안정됐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법전 대종사는 “그동안 종단이 이만큼 발전했는데 종단과 원장스님에게 도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다. 새 종정스님 모시고 화합해 종단을 운영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육원장 현웅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법전 대종사

의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올렸다.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큰스님이 종단을 위해 주신 많은 가르침을 잊지 않고 추후에도 마음의 이정표로 삼아 종단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례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육원장 현웅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기획실장 정만 스님, 재무부장 도문 스님, 문화부장 진명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포교연구실장 범상 스님, 총무원장 정책특별단장 원담 스님, 중앙종회 사무처장 경우 스님, 호계원 사무처장 태성 스님,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범산 스님이 참석했다. 또,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등 소임자들이 배석했다.



4월 3일 조계종 前 종정 법전 대종사(왼쪽)가 해인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소임자들의 인사를 받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날 하례는 종단의 최고 정신적 지도자로 큰 가르침을 주신 제11·12대 종정 도림 대종사의 깊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뜻을 이어 종단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염원을 담아 마련됐다. 4일에는 원로의원 스님들도 해인사를 방문해 그동안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는 하례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어록 중심 산림 운영할 터”

범어사 신임 주지 수불 스님

“선찰대보산 범어사의 선풍 진작을 위해 ‘어록산림’을 열겠습니다.”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신임 주지 수불 스님은 4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 받은 직후 이같이 밝혔다.

‘어록산림’은 간화선의 주요전적인 〈서장〉 〈선요〉 〈육조단경〉 등 선어록을 공부하는 산림 법회이다.

수불 스님은 “공심을 바탕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자비행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중의 공의와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부산지역 불교활성화에도 더 매진할 계획이다. 스님은 범어사 주지가 당연직인 부산불교연합회 회장직 수행을 통해 타종단과 연대해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불교중흥을 꾀하고 있다. 또, 부산지역 내 조계종사찰 모임인 조계종연합회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포교신행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스님은 “총림을 세우는 것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서울·대전에 거점포교당 마련”

범주사 신임 주지 현조 스님

“포교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전 등에 거점포교당을 열어, 속리산 산중에 위치한 지리적 제한을 극복하겠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범주사 신임 주지 현조 스님은 4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임명장 수령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최근 범주사는 신도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도 줄고 있다. 신행공간이라는 사찰의 역할을 못하면 범주사는 화석화되고 만다. 사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묘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조 스님은 “어른 스님들의 뜻을 수렴하고 잘 모시기 위해 예경국장 소임을 맡았다. 어른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본사 운영에 반영해 원융 살림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운영위원회를 산림 운영의 주체로 삼을 방침이다.

현조 스님은 “지금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바꿀 시점이다.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 분야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진제 종정, 자비나눔 2000만원 기탁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 대종사가 자비나눔 기금 2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종정 예경실장 호광 스님은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정스님을 대신해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다. 종정예경실장 스님(사진 맨 오른쪽)은 “추대식이 원만히 회향한데 대해 종정스님께서 총무원장 스님께 각별히 고마움을 전하라고 하셨다”며 “항상 정진하는 마음으로 종정스님을 모시고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범어사·범주사 총림 추진을”

총무원장스님, 선거 후유증 해결책으로 제안

돈봉투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범어사·범주사 주지 선거에 대한 대안으로 총림 지정 추진이 제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과 보은 범주사 주지 현조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총무원장스님은 “범어사 주지는 부산 불교를 책임져야 할 중요한 위치인 만큼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범주사 역시 각 문중의 어른스님들이 많은 만큼 문중이 화합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중 어른스님을 모시고 주지를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범어사와 범주사도 이미 총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기획실장 정만 스님도 “총림에 관한 규정을 완화해 일정정도의 자격을 갖춘 교구본사의 경우 총림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宗 正 弘 山 현 불
 총무원장 자 랑

입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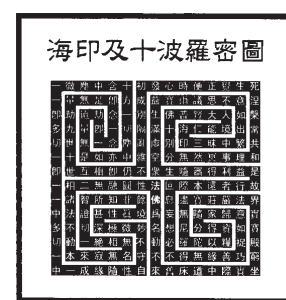
◆ 입종구비서류

- 승려, 법사, 사암등록 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주민증 앞 뒤 복사 1통
- 사암 사진 (안·밖)
- 총본산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 수월사
- 종정스님 주석 사찰 :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567-1 관음사
- 총무원 : 전화 063)583-8807 / 팩스 063-584-4153 / Mobile 010)6478-1569

종정큰스님의 법성계 친필휘호 보급 안내

사업장이나 집안에 법성계를 걸어두고 해인도를 소지하고 있으면 일체만법이 성취되고 모든 장애가 소멸되며 일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신묘한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큰스님의 달마도가 들어 있는 법성계 휘호는 신묘한 기가 있습니다.

- 보급가 15만원 (해인도 2매+족자 1매)
- 계좌 : 농협 351-0247-1334-03 (예금주: 우리불교조계종)
- H·P 010-6478-1569



해인도 10.5×17.5cm



법성계 38×145cm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